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발의... 주말 표결

### 고위전략회의서 결정...박홍근 "탄핵소추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장관을 파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투표)에 부처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를 해서 이 사건의 사고 원인,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하기로 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키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국정조사를 보이콧한다면, 자칫 연말 정국은 여야 간의 정면충돌로 인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범죄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하거나, 가혹

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법안은 이런 범죄의 피해자 본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없애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포츠진흥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가지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권 주자이던 지난해 10월 제주를

방문해 "국가폭력 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언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달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제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면액은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로 정산을 하거나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가정별 수납액 브 저감, 사위 시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병 채우기 등 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는 생활용수를 개인이 20%씩 절약하면 가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의회 - 공무원 노조 갈등' 봉합되나

### 행정감사 기간 시의원들 지적 노조 반발...시장·시의회의장 유감 표명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갈등 봉합에 나서면서 의회와 노조 간 갈등이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강기정 시장과 정무장 시의회 의장은 2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각각 시장연설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특히 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갈등에 대해 유감과 재발방지를 공개 표명했다.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은 2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다"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격론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날 선 지적들이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9대 의회 또

한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낙인이 찍혀 버렸다"면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고충이 가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들 간의 극한 대립을 어떻게 보시겠나? 부끄럽다"면서 "집행부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공직을 맡은 시민인 만큼 공직 수행의 기준과 지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법'과 '시민행복'이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시장연설에서 "시와 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며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 역할에 대한 존중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의회는 집행부를 개혁동반자로 보듬어 주시고 집행부는 시의회를 시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분명히 존중하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경제 위기를 넘어 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부실 용역에 대한 시의원들의 책임 추궁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물 아끼면 광주 수도요금 감면 개정 조례안 통과

지방정가 라운지

조석호 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시가 극심한 가뭄 탓에 절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아끼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

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석호(민주·북구 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도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감면 내용은 시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6월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10% 미만을 아끼면, 절감한 양만큼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절감률은 최대 13%까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거문도+백도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b>당일투어</b> 1인 134,000원~	<b>1박2일 투어</b>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